

Korea and IFRS

Michel Prada, International Seminar with Mr. Michel Prada, Chairman of the Trustees of the IFRS Foundation, November 2014

Introduction

내외귀빈 여러분, 서울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한국회계기준원(KASB), 특히 장지인 원장님과 기준원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ASB 를 비롯한 전세계 회계기준제정기구는 한국회계기준원의 높은 업무수준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IFRS 재단과 IASB 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 산업자원부 장관인 정덕구 재단이사회 이사님을 비롯하여 2012 년부터는 서정우 위원님이 IASB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님이 Monitoring Board 에 선임된 바 있습니다. 아시아-오세아니아 회계기준제정기구 그룹(AOSSG)과 IASB 산하 신흥경제국 그룹(EEG)을 통해 지역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제가 약 20 분간 연설하고 그 후에 Q&A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어째서 전세계 단일의 회계기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 목표의 달성과 관련하여 진척상황을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제정기구로서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 년에 예정된 IFRS 재단의 조직 및 효과성 검토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The case for global accounting standards

먼저 글로벌 회계기준의 사례입니다. 여러모로 볼 때, 한국은 글로벌 회계기준을 논하기에 매우 적절한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경제세계화의 주요 수혜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수출주도형 경제를 번창시키는 데 필수적인 구조개혁을 시행해왔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전세계 경제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으며, 한국은 계속해서 대규모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이 취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가 바로 **IFRS** 도입 결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 투자자들은 한국기업의 재무제표를 매우 익숙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 **LG**, 포스코, 삼성 등 한국의 다국적 대기업들은 이제 동일한 재무제표 형식을 수많은 해외 자회사들과 조인트벤처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로, 최근 발표된 **KASB**의 **IFRS**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학술문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IFRS** 도입으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검토보고서는 **IFRS** 도입을 통해 이익의 질 향상은 물론 한국 기업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이 향상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이 보다 정확해지고 한국기업들의 자본비용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IFRS**로의 이행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도입을 통한 이득이 상당할 것입니다.

이 검토보고서의 결과는 **IFRS**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의 경험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웨일즈 회계사협회는 최근 **EU**의 **IFRS** 사용에 관한 170개 연구에 대한 문헌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역시 고무적이었습니다.

이 같은 검토보고서들은 **IFRS** 재무제표가 투자자 등에게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동일한 글로벌 재무보고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 간에 상호이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맥킨지 앤 컴퍼니에 따르면 전세계 거래의 1/3 이상이 국가간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번영과 신흥국의 참여,

기술발전의 결합으로 향후 10년 간 국가간 거래량이 3배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국제 법률사무소인 베이커 앤 맥킨지에 따르면, 국가간 M&A 거래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강력한 거시경제적 정치적 힘이 세계화를 위한 동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계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과 국가로 이동하기 위한 전략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한국은 이 같은 강력한 경제적 힘을 이용할 줄 아는 국가의 좋은 예입니다.

경제 세계화와 금융의 상호연계성 수준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재무보고 언어에 대한 주장도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피투자자가 서로 반대편에 서있는 세상에서는 서로 다른, 때로는 양립할 수 없는, 국가별 회계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비합리적일 것입니다. 국가별 회계기준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마찰과 전환 위험만 더하게 됩니다.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효율적인 자본의 배분을 방해합니다. 바로 이것이 G20 리더들과 IMF, 세계은행, IOSCO가 IFRS 재단과 IASB의 목표를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글로벌 회계기준이라는 우리의 미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주 전에는 금융안정화위원회(FSB)가 글로벌 회계기준의 지속적인 적합성과 중요성에 대해 재차 확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지지의 대부분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보다 강력하고 재생력 있는 금융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바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업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하려는 전세계 정책입안자들에게도 상당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기업의 자금조달의 상당 부분은 전통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나오며, 일부 기업들의 경우 자본시장으로 그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많은 유럽의 은행들이 자본준비금을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자본시장연합’을 창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과 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성공여부는 국제 투자자들이 유럽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릴 준비가 되어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IFRS** 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투자자에게 있어 **IFRS** 는 재무보고의 질에 대한 신뢰의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촉진을 위해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의 개입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재무보고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Progress towards global standards

따라서 전세계 단일을 고품질 회계기준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잘 하고 있을까요? 상당 부분 잘 해내고 있습니다.

IFRS 재단은 최근 전세계 **IFRS** 사용에 대한 주요연구를 완료했습니다. 연구를 위해 먼저 **KASB** 와 같은 각국 제정기구들에게 **IFRS** 이용과 관련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전세계 대형회계법인 및 증권감독기구 등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이용하여 보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관련 공공당국과 함께 우리의 연구결과를 입증했습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연구방법의 결과로 연구데이터의 질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전세계 **GDP** 의 96%에 이르는 138 개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당 138 개국 중 114 개국은 이미 모든, 또는 대부분의 상장기업에 대해 **IFRS**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IFRS** 를 수정 없이 전면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한국과 같은 전면도입 국가들이 지역적,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역할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춘 글로벌 500 대 기업의 52%는 **IFRS** 를, 29%는 **US GAAP** 을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IFRS** 는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 지배적인 재무보고

언어가 되었습니다. 약 10년 전에는 그 어떤 국가도 **IFRS**의 이용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물론, 중국, 인도, 일본, 미국과 같은 일부 주요국가들이 아직 자국의 기업들에 대해 **IFRS**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자국 회계기준에 대한 두 번의 주요 개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첫 번째 개선은 1992년, 최근의 개선은 2006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작업으로 인해 **IFRS**와 유사한 현재의 중국회계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들이 이미 홍콩에서의 듀얼 상장(dual listings)을 위해 **IFRS**를 전면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중국이 마지막 단계를 완료하고 **IFRS** 전면도입으로 이행하길 원한다는 제 바람을 전달했습니다.

인도에서는 **IFRS**로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 인도정부는 최근 **IFRS**를 기반으로 하는 인도회계기준으로 이행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물론 중국과 마찬가지로 인도회계기준 역시 부분적으로 **IFRS**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와 협력하여 그 차이를 최소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IFRS**를 전면적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계속해서 가지는 것은 수 많은 인도기업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일본기업들의 경우 2009년부터 **IFRS** 적용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IFRS**를 선택적용하는 일본기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63조 엔에 달하는 46개 일본기업들이 **IFRS** 전면적용을 이미 실시했거나 그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IFRS**를 전면적용하는 3대 주요 이유가 바로 전세계 경쟁자들과의 비교가능성, 주주의 저변 확대, 관리 효율성의 향상이었습니다. **IFRS** 전면적용은 일본기업들이 최근 출범한 JPX-Nikkei 400 인덱스에 포함되기

위하여 고려되는 요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JPX-Nikkei 400 인덱스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국제 투자자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인덱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상황이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IFRS 이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진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IFRS 를 기반으로 한 8 조 달러 이상의 해외 투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투자자들은 이미 IFRS 재무제표에 익숙한 이용자들입니다. 또한 미국 SEC 는 미국에 상장된 약 500 개 해외기업의 IFRS 재무제표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수조 달러에 이르며 이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장임을 의미합니다.

SEC 위원장은 공개포럼에서 IFRS 는 SEC 의 우선순위 사항임을 밝혔으며, 미국 내 IFRS 이용에 대한 SEC 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신임 회계담당임원(Chief Accountant) Jim Schnurr 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전세계 IFRS 지도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도의 4/5 가 IFRS 적용을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1/5 에서도 IFRS 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Becoming the global standard-setter

마지막으로, IFRS 재단과 IASB 의 글로벌 회계기준제정기구로서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IFRS 재단이 2001 년 업무를 시작한 이래, 재단이사회는 각각 4 번의 전략 검토 및 정관 검토를 감독했습니다. 각각의 검토작업을 통해 IFRS 재단과 IASB 의 조직 및 효과성이 보다 향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검토의 누적효과로 제가 본 그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고 협의체 성격을 가진 국제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재단이사회가 계속해서 발전을 위한 기회를 모색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다른 국제기관으로부터 배우고 여러분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IFRS 재단의 조직 및 효과성에 대한 다섯 번째 공개협의(public consultation)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큰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듣고 싶습니다만, 재단이사회에서 이미 파악한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IASB의 최적의 규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정관에 따르면 IASB는 적절한 지리적 전문적 다양성을 가진 16명의 멤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지역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활동(outreach)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여러 메커니즘이 개발되었습니다. 회계기준자문포럼(ASAF)은 IASB와 전세계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잇는 훌륭한 혁신입니다. 또한 지역 회계기준제정기구 그룹이 등장하면서 중요한 지역과 국가의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현재,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아시아-오세아니아 회계기준제정기구 그룹(AOSSG), 라틴아메리카 회계기준제정기구 그룹(GLASS) 등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회계사연맹(PAFA) 역시 아프리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매우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구들이 ASAF의 멤버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와 같은 혁신들을 비추어 볼 때, 더욱 작고 집중된 IASB가 적절하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이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재단이사회는 IFRS 재단의 지배구조와 책임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IASB의 독립성을 보호할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Close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께 글로벌 회계기준의 필요성과, 경제 세계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려는 자본시장의 바람을 기반으로 글로벌 회계기준을 옹호하는 주장이 계속해서 증대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IFRS** 를 글로벌 회계기준으로써 더욱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글로벌 회계기준제정기구로서의 **IFRS** 재단의 조직 및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도 말씀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